



전남·경북도, 영호남 봉사자 교류 워크숍

전남도와 경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여수 일원서 2024년 영호남 자원봉사 관리자 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워크숍에는 전남과 경북 자원봉사 관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호남 자원봉사 주요사업 안내, 영·호남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영·호남 온기나눔 프로젝트, 특강, 여행과 봉사를 더한 불런투어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화합, 협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호남 온기나눔 프로젝트에서는 전남도에서 지원한 폭염 예방키트 7종(쿨토시·포도당·쿨스카프·아이스쿨조끼·선크림·핸디용선풍기·장바구니) 200박스(800만원 상당)를 자원봉사 관리자가 직접 포장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선정한 전남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유치 자문단 구성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태양 자문단을 구성,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자문단은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서울대,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국내 핵융합분야 연구교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인에이블퓨전, 비즈로네스텍, 큐빅솔루션, 한국전력기술 등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인에이블퓨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핵융합발전 스타트업 기업으로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 개발을 주도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2인자(사무차장)를 지낸 핵융합 석학 이경수 박사가 창업한 회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융합 민간협력 기술개발 △연구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기업 유치·지원 등을 논의하고, 전남도가 준비 중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계획과 기술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오지현 기자



남부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광주 남부경찰은 무진새마을금고 봉선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 A(41)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A씨는 지난 23일 은행을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적금을 해지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속하게 112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의 지시에 따라 3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려던 상황이었다.

송세호 광주남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예초기 무상점검 서비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초기를 보유한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28~29일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사진)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시동 불량으로 인한 작동상태 확인, 커버와 작업대 등 안전장치 점검, 예취날 상태 확인·교체 등을 점검했다.

또 예초기 안전사용 동영상과 농기계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예초기 무상점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예초기 작업 때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북부소방서,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평가

광주 북부소방은 9월 5일까지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팀단위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팀단위 전술훈련평가는 지휘자, 1번 관망수, 2·3번 관망보조, 운전원으로 5명이 팀을 이뤄 화재진압 4인조법을 실시하는 평가다.

점수는 평가지표에 의해 팀별 취득점수를 합산, 평균 평가등급별로 부여받게 된다.

화재진압 4인조법은 방화복 착용 및 차량 탑승부터 방수와 사다리 작업 등 화재나 재난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로 이뤄져 있으며 당일 감독관에 의해 평가관이 지정돼 평가된다.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기본 소방전술에 대한 반복과 숙달훈련이 중요하다"며 "실전같은 훈련과 평가를 통한 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진월동7979봉사단, 주거환경 정비 활동

광주 남구 진월동 7979봉사단(단장 조복순)은 29일 '진월동 7979봉사데이'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봉사데이를 통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속 어려움이 없는지 안부를 확인했다.

조복순 7979봉사단장은 "우리 이웃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7979봉사단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문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장은 "언제든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인사

광주대학교

△대학원장 김황용 (보건상담정책대학원장·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겸직) △대학원 부원장 김장호 △국제협력처 부처장 최지수 △지역사회협력센터장 신준우 △간호학과장 강광순 △작업치료학과장 황민지 △융합디자인학부장

박성현(시각영상디자인학과장 겸직) △뷰티미용학과장 김소현 △문예창작학과장 안점욱 △항공서비스학과장 이현주 △경영학과장 정대성 △건축학부장 양원영 △컴퓨터공학과장 임철홍 △건축학부 전공주임교수(건축학) 최재영



광주 북부경찰, 8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우산동 소재 아파트 2곳

광주 북부경찰은 우산동 소재 2곳의 아파트에 대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해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8월 인증에서는 우산동의 아파트 2곳이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보안 체계 등을 고려, 안전사항 평가 총점 80% 이상을 충족해 우수시설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온열질환·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8일 송암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 건설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및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초기 화재 대피 및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등이다.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대형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작업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NCT 태일, 성범죄건으로 입건돼 수사 중... 팀 탈퇴

그룹 'NCT'의 멤버 태일(30·문태일·사진)이 성범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성범죄 관련 혐의로 태일이 피해자인 성인 여성에게 신고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에서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

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SM은 "현재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및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광지혜 기자